

Global Services Summit

Jobs, Growth and Development

-출장보고서-

2011. 8.

<제 목 차 례>

1. 출장 개요	1
2. 출장 일정	1
3. 출장 내용	2

1. 출장 개요

- 사 업 명 : IT 산업에서의 가상자산 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서비스 선진화 국제 포럼
- 출장 목적 : World Bank 방문 및 Global Services Summit 참가
- 활동내용:
 - 2012년 KDI 연구과제와 연계하여 World Bank의 Multipolarity 협동 연구 가능성 타진을 위한 사전 접촉
 - 2011년 서비스 선진화 국제 포럼과 관련하여 세계 서비스산업의 현안 이슈 파악, 각국의 정책 대응 및 국제 공조에 관련한 정보 수집
- 출장기간: 2011년 7월 19일 ~ 2011년 7월 22일
- 출 장 자: 장우현 부연구위원

2. 출장 일정

출장 기간	활 동 사 항
7월 19일	서울 출발, 미국 워싱턴 D.C. 도착
7월 19일 오후	World Bank 방문
7월 20일 오전~오후	Global Services Summit 참석
7월 21일 - 7월 22일	워싱턴 D.C. 출발, 서울 도착

3. 출장 내용

- World Bank에서 파견 근무중인 한국은행 김형식 차장과 KDI-WB 공동연구 가능성 확인을 위해 최초 접촉
 - World Bank에서 2011년에 진행한 Multipolarity: The New Global Economy 의 심화 예제로 한국의 사례 연구를 KDI와 공동 진행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음 : Manager인 Dr. Mansoor Dailami 와 김형식 차장이 WB 쪽 참여자로 참가하는 안을 제시
 - 현재 WB의 입장만으로는 추가 의견 조율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이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WB측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첨부파일 (Korea with Multipolarity.pdf) 참고
- Global Services Summit 참가
 - 미주, 유럽 및 일본 등 해외 서비스 산업 현안과 정책대응에 대한 정보 수집
 - 미국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분명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산업 정책관련 이슈는 주로 해외 시장 개방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영업 자유도 개선에 있음을 확인함. 한 예로, 후발 국가들의 국영 기업 혹은 정책적 육성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책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음 (첨부파일 GS21st century trade issues.pdf 참고)
 - 같은 연장선상에서, 한미 FTA에 대한 언급이 컨퍼런스 동안 지속적으로 언급됨. 컨퍼런스에 참여한 미국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 미국-파나마, 미국-콜롬비아 FTA등 계류중인 FTA관련 법안을 되도록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보고 있었음. 특히, 한미 FTA의 경우 미국 입장에서 최초로 관철한 사항들이 많아 다른 나라들의 서비스 산업 시장 개방을 요구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 한 예로, Verizon 을 대표한 발표자의 경우 한미 FTA의 경우 개인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월경 이동 자유권이 보장됨으로써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을 줄여 획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 한미 FTA는 분명히 우리나라에게 큰 기회이지만, 서비스 산업의 관점에서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FTA 상대국인 미국에서 바라보는 미래의 기대 상황 이상의 성과를 얻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 미국의 현업에 종사하는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한미 FTA의 결과로 미국 서비스산업 시장 내수에의 영향은 미미한 반면 다수의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한국 시장의 적지 않은 부분을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임
- 따라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체계적 수립에 있어서도 FTA 등 시장 개방의 효과를 함께 고려한, 심도 있는 정책적 탐구 및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제 공조에 있어서는 많은 참석자들이 다자간 무역협정이나 지역간 무역협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 FTA를 포함한 각종의 무역 및 관세협정은 Ron Kirk 미국 무역대표부 대사, Bruno Ferrari 멕시코 경제장관, Chiaki Takahashi 일본 외교부 장관 등 발표자들의 공통적 관심사였음
- 발표 중 인상적이었던 점 한가지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계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임
 - Luncheon Keynote 연설을 담당한 Ian Bremmer는 "US Strategic Interests and Challenges in Asian Markets" 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아시아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경계를 높은 수위로 요구하였으며, 많은 공감을 얻었음. 참석자였던 주미 중국대사관 서기가 항의에 가까운 발언을 했으나 좌중에서는 오히려 다소의 역효과가 나는 분위기가 조성될 정도였음